

徐桂根 先生님



1927年 京城齒專을 卒業하신 當年 74歲의 徐桂根 老會員은 한마디로 江陵地域의 防牌요 仁術의 代名詞라고 할 수 있겠다.

6.25動亂後 몇年을 除外하고는 近 45個年을 江陵에서만 仁術을 펴 오셨다.

1927年 開業當時만 해도 患者가 없었다. 없다가보다는 齒科病院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를 程度였다.

江陵은 勿論, 墨湖 注文津 等地를 巡回하며 齒科에 對한 啓蒙에 나섰다. 約一年 동안을 지금의 無料巡回診療를 하니까 비로서 認識이 되었는지 患者가 찾아왔다.

6.25動亂 當時는 軍醫官이 아닌 聯隊長으로서 江陵地方에서 熾熱했던 戰鬪를 치른 江陵의 防牌이기도 하시다.

齒科醫師 生活를 통해 보람스러웠던 일은 亦是 돈없는 患者를 手術 治療 해주고 받은 眞實로 고마움을 느끼는 純粹한 모습이라고 하신다.

그럼 제일 괴로웠던 경우도 있으셨는지 先後輩間에 醫師로서의 尊嚴性이 缺如되어 있다는것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同僚를 誹謗하는 것이다. 醫師의 矜持나 尊嚴性을 忘却하고 現實逃避나 自救策을 써서 돈이나 벌겠다는 會員이 없지 않은 것이 가장 슬픈일이라고 하신다.

後輩에게 구태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正直하고 誠實하고 勤勉하고 努力하는 醫

師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後進의 教育을 맡고계신 분에게는 醫師 以前에 참된 人間으로서 醫師라는 尊嚴과 先輩를 尊敬하고 後輩를 걱정해 주고 사랑하며, 患者에게는 名實共히 仁術을 베푸는 醫師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란다.

74歲의 高齡이지만 健康이 다할때까지 齒科醫師로서 地域 社會 發展에 最善을 다 하겠다 하셨다. 齒科技工까지도 손수 하시고 계시는 歷戰의 勇士이면서 每事에 模範的인 徐桂根 先生님에게서 齒科醫師像을 切實하게 읽을 수 있었다.

徐桂根 先生님

1904年 1月 24日生

江原道 江陵市 南門洞 132-1

電話 2406番

KUM KANG
Dental Lab.

移轉盛業中인!

(21) 0673 (21) 0095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